

15일 Market Index			
↑ 코스피	8545.98	↑ 코스닥	1034.03
	(+422.36)		(+4.98)
↓ 금리 (연이자율)	3.744	↓ 환율 (원/달러)	1515.15
	(-0.064)		(-4.65)

LG전자  
에어컨 60년 노하우  
AIDC 냉각  
04



## 美-이란 전쟁, 106일 만에 마침표... 19일 합의문 서명

**국제경제 급속 정상화**  
트럼프 “호르무즈 개방,  
해군 봉쇄 즉각 해제 승인”  
파키스탄 “모든 군사작전  
즉각·영구적 종료 선언”



최태원·노소영, 26일 재산분할 변론 재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을 마친 직후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정식 변론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 /뉴스시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이란 공습으로 발발해 전 세계를 극도의 경제적 군사적 위기로 몰아넣었던 ‘미국-이란 전쟁’이 106일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 정부는 군사 작전의 영구적 종료와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전면 개방을 골자로 하는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을 선언했다.

글로벌 물류망을 마비시키고 스테그플레이션 공포를 부추겼던 중동발 헬로가 풀리면서, 전쟁 충격에 신음하던 국제 경제도 급속한 정상화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2·3면〉**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세바즈 사리프 총리는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란 양측이 레비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했다”며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적인 종전 합의문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합의 발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

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종전 사실을 강력히 시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면 승인하며, 동시에 미국 해군의 봉쇄 즉각 해제를 승인한다”라며 “전 세계의 선박들이여, 엔진을 켜라. 석유가 흐르게 하라”고 선언했다. 이어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이것이 길고 아름다운 평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망치지 말자”라고 덧붙였다.

이란 외무부가 공개한 14개 항의 종전 MOU 초안에 따르면,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제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기로 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군 추가 배치와 신규 제재 부고를 중단한다. 특히 양측은 핵 문제 관련 최종 협상 전 단계 조치로서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약 36조 원 규모)의 절반을 우선 해제하고, 이란에 대한 석유 제재 유예 및 해상 봉쇄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본협상의 의제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마일·유럽의 이란 제재 완화, 이란 경제 재건 계획 등 3가지로 제한된다.

이번 합의는 발표 당일 아침까지도 이스라엘의 돌발적인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으로 이란이 협상 중단을 경고하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었으나, 확전을 경계한 미-이란 수뇌부의 강력한 마무리 의지로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

미-이란의 종전 선언으로 글로벌 금융시장과 원자재 시장은 즉각 요동쳤다. 합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제 유가는 급락세로 돌아섰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가라앉으면서 국제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 가치는 10일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3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메트로경제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 글로벌 먹거리 된 ‘K-푸드’

메트로경제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K-food, 세계인의 먹거리’라는 주제로 오는 6월 17일(수)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제 ‘K-푸드’는 전 세계인의 일상을 파고들며 글로벌 식문화의 새로운 주류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고유의 맛과 건강한 식문화를 담은 K-푸드는 전 세계 유수의 마켓과 식탁을 점령하며,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을 넘어 전 세계가 매일 즐기는 ‘세계인의 먹거리’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의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대표 식품 기업들의 발자취와 성공 전략을 조망하는 푸드이노베이션 포럼을 준비합니다. 이번 포럼은 풀무원, 대상 등 글로벌 무대에서 K-푸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기업들의 생생한 현장 스토리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식품산업이 마주한 다음 단계의 도약과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독창적인 제품 개발 스토리부터 한국 식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계화에 성공한 비결까지, K-푸드의 진정한 매력과 가치를 묻는 다채로운 강연이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K-푸드가 지속 가능한 글로벌 트렌드로 이어지기 위한 방향성을 진단하고, 동반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뜻 깊은 교류의 장이 될 계획입니다.

- 주 제 : K-food, 세계인의 먹거리
- 일 시 : 2026년 6월 17일(수) 14:00~17: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 의 : 푸드이노베이션포럼 사무국 02)721-9818
- 참가비 : 사전 등록시 무료
-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 세계 금융시장 ‘환호’... 코스피 8500 날았다

**중동전쟁 사실상 종지부**  
33만 전자, 220만 닉스 올라  
코스피 5.20% 오른 8545.98

106일간 이어지며 세계 경제를 짓눌렀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14일 종지부를 찍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제히 환호했다. 코스피는 8500선을 다시 뚫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33만 전자’ ‘220만 닉스’ 고지에 나란히 올랐다. 다만 지수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빛무’ (빛내서 투자)에 대한 우려와 반도체 수출에 대한 경고음도 함께 커졌다.

15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5.20% 오른 8545.9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에는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

(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생되기도 했다. 올해 14번째 매수 사이드카다.

코스피는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가 완료됐다”고 선언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를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급등했다. 삼성전자는 4.50% 오른 33만 7000원에, SK하이닉스는 6.42% 오른 228만 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은 이를 연속 ‘사자’에 나서면서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 원가량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1조 4900억 원 어치를 팔아치웠고 기관은 540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해외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주요국의 증시도 급등했다. 일본 니케이225가 4.99% 급등한 것을 비롯해 대만(2.78%)·호주(1.25%) 등 아시아 증시가 동반 상승했다.

글로벌 자산 시장도 장밋빛으로 물들었다. 글로벌 물류의 핵심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재개 소식이 국제 유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인베스팅닷컴 등에 따르면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83달러 선으로 4.6% 가량 떨어졌고, 서부텍사스유(WTI) 선물 가격 역시 5% 이상 하락하며 80달러대로 내려앉았다.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며 비트코인 또한 6만 5000달러 선을 재돌파하는 등 자본시장 전반에 온기가 돌았다.

다만 증권가에선 주요국의 기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당분간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형 공표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지난 9월 9.23으로 고점을 찍은 뒤 87선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현재 변동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다음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일본은행(BOJ) 등 주요 통화 정책회의가 변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7원 내린 1511.1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李 “부정선거 음모론, 본질 왜곡”

유럽서 화상 수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14일(현지시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선거 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화



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연 건역대 처음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국내 상황이

엄중하자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주말에도 화상으로 참모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변명의 여지 없이 선관위의 투표 부실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첨단산업, K-컬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 메트로 한줄뉴스



- ▲李대통령, 잠실 봉쇄에 “시위대 행패 경찰에 엄중수사 지시”
- ▲장동혁, 李대통령 향해 “재선거·특검 입장 밝혀라”

- ▲곽상언 “유시민 홍보 채널 갈아” 직격...유시민 “당분간 재단 떠난다”
- ▲법사위원장 놓고 충돌...與 “우리가 말아야”·野 “포기하라”

- ▲시도지사 당선인 불러모은 金총리... 7명은 불참
- ▲민주당 지지율 역전한 국힘...대여투쟁 수위도 높다